

광주상의 회장에 한상원 다스코 회장

92명 상공의원 전원 선거...52표 획득, 김보곤 후보 13표차 꺾어 “글로벌 기업 유치 노력”...18년만의 경선 갈등 후유증 해소 등 과제

20일 실시된 제 25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에서 한상원(사진) (주)다스코 회장이 선출됐다. 92명의 상공의원 전원이 참석한 이날 선거에서 한 회장은 52표를 얻어 차점자(39표)인 김보곤(DK (주) 회장) 후보를 13표차(무효 1표)로 앞섰다.

한 회장은 당선 후 “상공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당선 될 수 있었다”면서 “‘빛진 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맡은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석패한 김보곤 후보자는 “한상원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드린다”며 “선거 기간 알게 모르게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광주상공회의소가 위기의 광주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조업’ 대 ‘건설업’ 간 대결 구도가 잡혔던 이번 상의회장 선거는 마지막까지 후보자 간 우세를 점치기 힘들다는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선거 결과 득표수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18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올해 광주상의 선거는 두 후보 간 치열한 경쟁 양상을 띠었다. 광주상

의 회장 선거 역사상 전에는 후보자 기자회견이 열렸고, 회원을 대상으로 공약집을 배포하는 등 상의회장 자리를 놓고 두 후보자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치열했다는 평가다.

특히 투표권 확보를 위한 회비납부액만 약 32억 원에 달하는 등 ‘전(錢)’ 경쟁에도 불이 붙으면서 ‘돈 선거’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광주상의 회장 선거가 한상원 회장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아무래도 경선을 치르면서 광주상의 안팎에서 크고 작게 드러난 갈등으로 후유증이 우려된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일부 광주상의 사무국 간부들이 작·간접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움직였다는 의혹 등 논란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과열된 상의 회장 선거의 대표적인 후유증 중 하나인 낙선 후보 세력의 상의 이탈이나 비협조적인 태도 등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 광주상의 회원사 대표이사는 “김보곤 후보자가 부회장 자리를 맡는 등 패배를 받아들이는 모양새지만, 일부 회원들의 이탈을 막기는 어려울 것



로 보인다”고 말했다.

치열했던 광주상의 회장 선거가 끝이 나면서 지역 경제계에서는 광주상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국제경기 침체를 겪는 동안 지역 경제 현안을 두고 광주상의가 미미한 존재감을 보였기 때문으로,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광주상의가 지역 경제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상원 회장은 “광주상의와 광주시가 협력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미래 세대가 광주를 떠나지 않는 광주를 만들 것”이라며 “지역 대표 경제 단체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 25대 부회장은 박철홍·김보곤·김홍균·양진석·이정권·신경식·김형석·이계영·임흥근·최갑열·장종택·마찬호 등 10명이 선출됐다. 감사에는 김형복·김용구가 선출됐으며, 상근부회장은 채화석이 선임됐다. 25대 임원들은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은행 청년 자립준비 1억5000만원 후원

멘토링 등 정서적 지원도 확대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시 동구 본점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후원금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이번 전달식은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광주은행 관내이비서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후원금은 보호시설을 벗어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광주·전남지역의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 통해 자립준비청년 월세·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광주은행은 지역 내 자립준비 청년들을 대상으로 광주은행 임직원과의 멘토링 프

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 방법 전수, 정서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유형 및 예방법 교육 등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이번 후원금이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우리 지역의 미래 동량인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회공헌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해부터 굿네이버스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의료용품 및 겨울 난방용품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광주은행은 총 230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약 7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난 19일 대전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금호 멤버스 데이’ 행사에 참석한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과 타이어프로·KTS 대리점주 및 임직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전국 대리점주 초청 ‘금호 멤버스 데이’ 성료

모빌리티 시대 시장 선도 다짐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지난 19일 ‘금호 멤버스 데이(KUMHO MEMBERS DAY)’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호 멤버스 데이는 금호타이어 전국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매년 연간 영업·마케팅 정책을 공유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 행사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이노브(EnnoV)’ 출시를 기념하며 금호타이어의

타이어프로·KTS 대리점주 및 임직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금호타이어는 2023년 경영실적 및 2024년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전기차 전용 브랜드 ‘이노브(EnnoV)’ 운영 전략 정책 등을 발표하며 대리점주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는 금호타이어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많은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며 “올해에도 전기차가 최적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출시한 이노브(EnnoV)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걸맞게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의 특화유통망 타이어프로 광양점의 한재대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회사의 비전과 방향성을 이해하고 회사와 대리점주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이번에 출시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 ‘이노브(EnnoV)’ 제품을 중심으로 매출 확대 기여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멤버스 데이 참가 소감을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관광 분야 창업자 12명 2000만원씩 지원

전남도·전남관광재단

4월12일까지 30명 모집 선발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관광 분야 예비창업자 12명에게 창업자금 각각 2000만원씩을 지원한다. 우선 오는 4월 12일까지 30명을 선발해 교육, 발표 등을 통해 창업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창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20일 “미래 산업인 관광 분야에서 지역 관광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성장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 서비스, 체험·콘텐츠 및 인프라 등의 다양한 관광 분야에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이를 실현하여 지역 관광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집대상은 만 19세에서 55세까지의 전라남도 거주자나 전남 예정자로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는 신규 창업자나 관광 업종 외에서 3년 미만의 사업 경험이 있는 초기 창업자가 지원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남도관광재단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heejun@jnto.or.kr)로 제출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해남서 ‘영농後 환경愛’ 캠페인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 수거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지난 19일 해남군에서 (사)농가주부모임전남도연합회(회장 정해숙) 희망드림봉사단과 함께 ‘영농後 환경愛’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농주연 환경에 캠페인은 농촌의 무분별한 영농폐기물 방치, 소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산불을 방지하고 농업인에게 올바른 영농폐기물 배출방법을 홍보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전남농협과 전남 농주연 회원

등 총 40여명이 참여해 농촌에 방치된 폐 비닐과 폐 농약용기 등을 수거했으며, 환경오염 및 산불 방지 홍보에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박종택 본부장은 “농촌의 환경과 미래를 위한 전남 농주연의 노력에 감사드리다”며 “전남농협도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는 농협에서 육성하는 여성농업인 단체로 전남 19개 시군, 91개 분회(총 3123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희망드림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페이 모바일 신분증 탑재 전자지갑 ‘삼성월렛’으로 재탄생

삼성전자의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고 전자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으로 탈바꿈한다.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는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삼성 강남’에서 행사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과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의 연동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신분증 탑재를 계기로 삼성페이의 서비스 명칭도 ‘삼성월렛’으로 변경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

삼성월렛에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빠르고 안전하게 인증되며, 개인정보는 모바일 보안 플랫폼 ‘삼성 녹스’에 보관된다. 삼성전자는 삼성월렛을 모바일 결제와 티켓, 멤버십, 쿠폰, 디지털 키, 탑승권, 전자증명서 발급 등을 포괄하는 종합 전자지갑 서비스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다음 달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의 이름은 삼성페이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업데이트 완료 후 스마트폰의 앱 아이콘이 변경되고 실행시 상단에 삼성월렛이 나타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우리농업지킴이 광주본부 광산구 다문화가정 학용품 나눔

농협 광주본부 후원 140세트 전달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광주지역본부(본부장 한재규)는 지난 19일 광주 광산구에서 새 학기 맞이 ‘다문화가정 학용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가 주관하고 농협 광주본부가 후원한 학용품 나눔행사는 새학기를 맞아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한재규 본부장, 이현호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김진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관내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학용품 140세트를 광산구정에 전달했다.

한재규 본부장은 “새학기를 맞은 학생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고 농협의 따뜻한 응원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와 농협광주본부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는 범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공헌 단위로 취약계층과 농업·농촌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90.14(+33.97)
↓ 코스닥	891.45(-0.46)
↑ 금리 (국고채 3년)	3.371(-0.012)
환율 (USD)	1339.80(0.00)